

구조 전환의 길 확고부동하게

쑤저우(徐州): '가감승제(加減乘除)'로 구조 전환 추진

푸른 강물이 출렁이고 있고 강기슭 양쪽으로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다. 이는 기자가 쑤저우시 구러우구(鼓楼区) 당완하(丁萬河) 수리(水利) 관광지에서 본 모습이다.

당완하의 변신한 모습은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구러우구의 축소판이다. 명자거우 구역에서는 과거의 화학공업집결지가 화이하이 스마트물류단지로 탈바꿈하였다. 구러우구 발전개혁국 치수화(新樹華) 국장은 물류단지는 쑤저우시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점적으로 계획 및 건설한 4대 물류단지의 하나이며 이미 성급 시범 물류단지로 선정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올해 6월, 덩이형(鼎易恒) 현대 물류단지, 싱가포르 핑수(豐樹) 물류단지 등 12개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며 총 투자는 26.5억 위안에 달한다.

구러우구는 낙후된 생산설비를

도태시키는 '뺄셈(減法)'을 하는 동시에 특색산업에 주목해 '덧셈(加法)'을 함으로써 현대산업무역 핵심구역, 현대물류중추구역, 비즈니스금융중심구역, 인터넷경제 하이터크산업단지 등 중국 낡은 공업단지 이전 및 개조 시범구를 건설하였다. 혁신을 모색하는 것은 곧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구러우구는 인터넷과 혁신창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으로 발전의 '곱셈(乘法)'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이산 마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중국과학원 그린에어, 다탕(大唐) 텔레콤 텐텐(天天) e스포츠 등 업계 선두기업을 아우른 구러우 클라우드 창업 과학기술단지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시: 스마트제조산업 '바람과 구름'의 만남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날이지만 우시 시엔다오(先導) 지능 장비주식유한회사(Wuxi Lead Intelligent Equipment CO.,

LTD.)는 시원하기만 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공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기업이 업계의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전지설비 제조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왕연칭(王燕青) 회장은 시엔다오의 리튬전지 생산설비 효율은 동종 제품의 1.5배 이상으로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전 세계 80%의 iPhone 휴대전화 배터리를 시엔다오설비가 제조하고 있다.

시엔다오지능장비와 같이 우시하이터크산업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텐안(天安) 트랜(智聯) 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는 자동차 사물인터넷회사이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홍타오(洪濤)는 기자에게 자동차, 도로와 인간이 연결된 스마트 세계를 묘사하였다. 운전자는 자동차와 대화하고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 자동차 보험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 있

다...텐안트랜의 '스마트칩'만 장착하면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텐안트랜의 자동차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120여만 명의 단말 사용자를 확보하였는데 올해 영업수익 3억 위안 이상을 실현할 전망이다. 다른 자동차 사물인터넷업체의 회사들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지만 텐안트랜은 업계 3위로 진입하는 등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뚝뚝'을 잡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雲端)'에 접속하는 것이다. 시엔다오지능장비를 일례로 작년 해당 기업은 IBM과 협력해 '시엔다오 클라우드(先導雲)'를 만들었는데 시엔다오의 디자이너들은 키보드와 화면 하나로 합동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카드로 임무를 받으면서 정밀하고 생산을 실현하였다.

엔칭: '해상삼협(海上三峽)' 조용히 부상

엔칭 등타이 연해 지역 간척지종합개발선도구에 올라서면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모습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중국 최대의 '풍력·태양광·어업' 일체화 발전소, 세계적으로 개체 규모가 가장 큰 간척지 풍광전(風光電) 산업기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매년 1.2억 킬로와트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8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엔칭은 장수성의 해안선 61%와 간척지 70%를 보유하고 있어 청정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천혜의 땅이다. 등타이시 관계자에 의하면 등타이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풍력·태양광·어업' 입체적 개발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위에는 풍력발전, 중간에는 태양광 이용, 아래에는 수산양식이 있어 연해 지역 간척지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최대화하였다.

'풍력·태양광·어업'의 상호 보완적 산업을 토대로 등타이시는 연해 지역 간척지종합개발선도구를 건설하였는데 계획 면적은 20제곱킬로미터이다. 현재 2.1만 무를 건설하여 풍력·태양광·어업의 상호 보완,



순환 경제, 고효율 양식, 생태 과학 보급 관광 등 4대 특색 시범구를 형성하였으며, 신화(神華) 그룹, 중국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 중국화톈(華電) 그룹, 중국기계공업그룹 등 다수의 중앙기업을 유치하였다. 현재 기지는 풍력발전설비 총투자만 50억 위안이 넘고 신에너지 설비용량은 1,000메가와트를 돌파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약 20억 킬로와트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장수성의 1/4을 뛰어넘는 수치이며, 그로 인해 중국 최초의 그린에너지 시범현(縣·市)으로 선정되었다.

엔칭은 또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10개가 중국 해상풍력발전 개발 및 건설 방안에 포함되며 총 규모가 201.25만 kW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장수성 건설 규모의 57.67%를 차지하였다.

中国江苏

新华报业传媒集团 主办

总第 252 期

联系电话: 0086-25-58680903

E-mail: xhwh@xhby.net

欲知更多新闻, 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江网英文频道

물의 운치 장수 사진전

수서호(瘦西湖)의 봄

양저우 수서호는 중국 5A급 관광지 '천하제일의 원림(園林)'이라 불린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오정교(五亭橋)는 수면 위로 떠오른 연꽃처럼 보일 듯 말 듯 색다른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저우제화·周澤華/촬영]



이관왕 수상

2016년 중국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양쯔팡(揚子江) 제약그룹은 중국생물의약 부분 브랜드 강도와 브랜드 가치 이관왕을 차지하였다.

총투자 60억 위안에 달하는 동산(東山) 정밀전자프로젝트가 지난달 엔칭(鹽城)국가하이테크산업단지에서 건설에 들어갔다. 해당 프로젝트는 엔두의 개체 투입 규모가 가장 큰 공업프로젝트로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150억 위안 이상의 매출과 10억 위안의 세수를 실현할 수 있다.

엔칭하이테크산업단지는 엔두의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주전장으로 스마트단말기, 첨단장비, 신에너지 등 3대 신흥산업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현재 싸이보위화(賽博宇華), 귀통세기(國通世紀)

총 투자 60억 위안 공업프로젝트 가동 엔두(鹽都) 경제 구조전환에 새로운 동력 추가

등 프로젝트 62개를 유지하였고 제품은 스마트 휴대전화, 스마트웨어, 스마트 오디오와 비디오, 스마트 안보 등 분야를 두루 아울렀으며, 핵심부품에서 브랜드 완성품에까지, 하드웨어 생산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까지 이르는 전 산업사슬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한편 '1개 단지와 5개 구역(一園五區)'도 초보적인 규모를 갖춰 산업, 문화, 관광, 지역사회 등 기능을 하나로 아우른 '스마트 창조 마

을'을 곧 탄생시킬 예정이다. 쑤저우 등산정밀제조는 중국 최고의 정밀판금제조기업이다. 작년 미국의 MFLEX를 인수한 후 여러 곳을 고찰한 끝에 이곳을 선택해 생산연구개발기지를 재건하기로 하였다. 등산정밀전자는 총 투자가 60억 위안이다. 그중 설비투자는 30억 위안이며 연구개발센터, 유연성 회로판 등 프로젝트를 건설하는바 내년 1분기에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된다.

중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렌윈강서 개최

'차이나 드림'에서 발전기회 모색하기

최근 제5회 중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 렌윈강에서 개최되었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표가 렌윈강에 모여 우의, 협력과 희망을 다졌다. 타지키스탄공화국 이브라힘(伊布拉西姆)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을 공동 발전을 위해 보낸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이나 드림'에서 우리의 발전기회를 찾기를 희망하며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각국의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철도가 건설 중에 있고 또 쑤저우기업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측의 철도 전기화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렌윈강 항구, 슈웨이신구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에 렌윈강에서 수제 카펫 전시회를 열었고 지금은 또 렌윈강과 물류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곳에서 협력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카자흐스탄 ABDI여행사의 관계자 살리크메티베키 씨는 최근 렌윈(連島)을 답사하였다. 그들은 이미 렌윈강의 여행사와 협력관계를 맺었고 포럼에서 체결할 협력협약서에 따라 '관광객 교류와 홍보, 편리한 통관통로 건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록 지금은 카자흐스탄은 장수관광객이 많지 않고 교통도 편리한 편이지만 살리크메티베키 씨는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더욱 많은 교류와 왕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렌윈강시 여유국 허산테(賀善鐵) 부국장은 얼마 전에 장수성 대표단을 따라 카자흐스탄을 고찰하

고 돌아왔다. 그는 아스타라 등 카자흐스탄 도시의 유럽식 건축 양식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장수 관광객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아스타라로 통하는 기차편이 있고 쌍방이 노력을 통해 비자, 교통 등을 꾸준히 개선하면 중앙아시아를 찾는 장수 관광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포럼 기간, 중국-카자흐스탄 물류기지는 방문객을 접대하는 주요 장소가 되었다. 중국-카자흐스탄 국제물류유한회사의 류빈(劉斌) 사장은 기지는 가동된 지 3년 만에 수출입 화물 약 800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50만 TEU를 달성하였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이 화물을 운송하고 저장하며, 무역을 진행하는 국제적 경제플랫폼으로 거듭났다고 소개하였다. 기지 한쪽 끝은

카자흐스탄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와 지역에 연결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화물은 이곳에서 철도·해운 연계운송을 통해 화물의 대류(對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얼마 전 '뤄일귀스-둥먼(東門)' 경제특구 내륙항구프로젝트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위안(中遠)해운 그룹과 렌윈강항구 지주그룹은 카자흐스탄 철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만내륙항구의 주주권 49%를 공동 구매하였다. 이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국제물류 협력프로젝트이다. 앞으로 렌윈강에서 출발하는 중앙아시아, 중부 유럽 화물 열차는 내륙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교체하게 된다.

장수성 긴급 뉴스

『왕희지(王羲之) 평전』, 한국서 번역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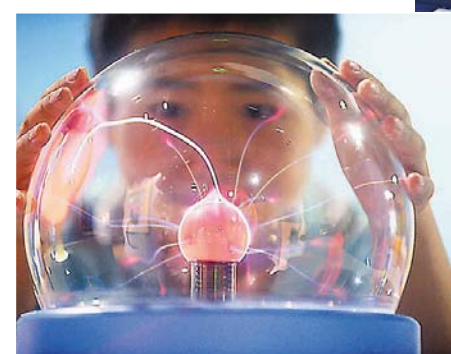
왕희지는 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서성(書聖)'으로 추앙 받는 서예가이다. 최근 장수의 미술가이자 학자인 귀렌푸(郭廉夫)가 저술한 『왕희지 평전』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한글판 『왕희지 평전』은 500여 페이지로 한국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귀렌푸는 장수 미술출판사 전임 부사장, 부편집장으로 2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그중의 4권은 중국의 관련 대상을 수상하였다. 중문판 『왕희지 평전』은 난징대학교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사상가평전 시리즈 총서의 하나이다. 해당 총서는 제1회 중국출판정부상(政府獎)을 수상한 적이 있다.

장수 6개 기업, 중국 100대 인터넷기업 반열에 진입

최근 2017중국 100대 인터넷기업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장수는 수닝지주그룹, 통칭(同程) 관광, 투뉴(途牛) 관광, 위뉴(嵬牛) 디지털, 윈만만(運滿滿), 셴류우(三五五) 등 6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장수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수닝지주그룹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산하에 쑤닝이거우, 쑤닝금융, 쑤닝문화투자, 쑤닝은행 등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 전환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통칭관광은 뛰어난 종합실력과 발전 잠재력, 새로운 상업패턴으로 이름을 연속 올렸으며 30위 반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쑤저우·우시, '관광레저시범도시'로 선정

최근 중국국가여유국은 시안(西安)에서 제3회 전역관광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관광레저시범도시 건설 성적을 발표하였다. 10개 도시가 첫 번째 '중국관광레저시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장수에서는 쑤저우와 우시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중국국가여유국은 2015년에 <관광레저시범도시> 업계표준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표준은 지금까지 중국이 관광레저도시 발전 분야에서 제정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도적 가치가 있는 업계표준으로 관광업이 표준화를 통해 업계와 산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하다.



여름방학 과학기술 매력 즐기기



여름 방학, 양저우시 과학기술관은 '과학기술 카니발' 과학보급 공익행사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사진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다.

난징에서 사귀 '부자 친구'들

고 하였다. 인수도 많지 않고 치안이 좋아 저녁에 혼자 외출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해 젊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실상 위험이 없는 안전도가 높은 도시라고 하였다.

난징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씨는 중국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재벌 2세'도 포함되었다. 그는 중국의 '고위공직자 자녀'와 '재벌 2세'들은 정말 부자라고 하면서 매년 모임이 있을 때 자신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안전도가 높은 도시라고 하였다. 그는 난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난징의 생활리듬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이라

고 하였다. 초대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한번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난징대에서 알게 된 20세 나이는 중국 여학생이 람보르기니를 몰고 와서 바라다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중국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더 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격이 뛰어나고 아름답으며, 가정형편까지 좋은 여자가 비싼 차로 바라주겠다고 하니 그것에 더 쇼크를 받은 것이다. 이씨는 친구 중에 난징시 쉬안우구에 살고 있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하였다. 친구도 잘했지만 그의 부모가 더 잘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합니다. 가면 맛있는 중국 요리를 대접하고 떠날

43일 동안 약 100차례 행사 선보여 우시 고운하(古運河) 야간관광축제 개최

‘운하 예찬-이백의 답가행’을 다 시 만나기(又見岸上踏歌行)를 주제로 하는 2017우시 품질 량시(梁溪) 강남고운하 국제야간관광축제가 최근에 가동되었다. 축제는 43일 동안 약 100차례 행사를 통해 '문화·상업·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운하의 노래', '운하의 시', '운하의 춤'으로 전시된다. 동서고금을 연동해 운하의 특색을 묘사한 프로그램으로 일관되며, 문화공

연 약 20회, 관광체험 약 30회, 독서 행사 10여 회, 문화강좌 10여 회, 영화전시 약 10회, 상업무역행사 20여 회 등 6개 종류의 시리즈 행사가 포함된다. 축제 기간, 난장가(南長街)에서는 매주 미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페어리드공연을 진행한다. 또 징항(京杭) 대운하 연선의 18개 도시 대표들은 우시 고운하 강변에 모여 '아름다운 운하 탐방·운하문화 살리기-2017중국대운하 도시연맹(우시) 연례회의' 행사를 개최한다.



이대훈 씨의 최근 모습

때는 다시 놀러오라고 당부하곤 합니다." 그는 이 친구의 집에 가면 항상 마음이 가볍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중국인들의 어떤 습관은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난징 친구 중에 어떤 이는 결혼한 후에도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고 길거리에서 썬빵이나 두유로 때우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결혼하면 아침식사가 매우 중요한 한끼가 됩니다. 이렇게 대충 때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이 결혼할 때

내는 축의금을 보고 또 할말을 잃었다고 하였다. 며칠 전에 친구 한 명이 결혼해서 다른 친구한테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물었는데 그 친구는 편하게 내면 된다고 하였고 한다. 그러하여 결국 888위안을 냈는데 부끄러워 컸다고 하였다.

대하 중에 그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조금 지나 그는 미모의 중국 여성을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 그는 여자 친구 사요쑤이라고 소개하였다. 알고 보니 그가 난징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앞서 말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난징에 있었기 때문이다. 리종장·李宗長 글/사진

장수의 한인사회